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거룩한 보제들

마태오 제6주일

성 뵤로코로스, 성 티몬, 성 니카노로스
70인 사도들

제5조,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사도 찬양송 / 84, B 262
- 성당 찬양송
- 구세주 변모 축일 시기송 / 178, A 218
- 사도경: 로마 12, 6-14 / 봉독서 162
- 복음경: 마태오 9, 1-8 / 111, B 4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거룩한 보제들

우리 교회에서 7월 28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뵤로코로스, 성 티몬, 성 니카노로스 그리고 성 빠르메나스는 예루살렘에서 열두 사도가 주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세운 7명의 보제들 가운데 포함된 분들입니다. 나중에 교회의 영적 사업이 확대되면서 일곱 명의 보제들은 사도들을 도와 복음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고귀한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설립되었습

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한 다음에 덕에 치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삶에서의 물질적 문제들을 슬기롭게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오 6:33)

가벼운 바람처럼

지난 7월 20일 토요일은 엘리야 예언자를 기념하는 축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는 삶을 통해 매우 생생하고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몇 세기가 지난 다음 복음사도 성 요한의 복음 말씀과 서신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호렙 산에 올랐었습니다. 이 신성한 장소는 매우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산에서 하느님은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는 “나는 곧 나다.”(출애굽기 3:14)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하느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그 호렙 산에서 하느님은 이번에는 엘리야 예언자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의

해서 보거라. 이제 내가 네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너무 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거라.”

먼저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너무나 강해서 산을 뒤흔들고, 바위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쇄도하여 버릴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길 속에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즉, 시원한 바람과 같이 여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가벼운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느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쓸어버리고, 파괴하고, 태워버리고, 몰살시키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가벼운 바람과 같은 소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고, 하느님 말씀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고 숨어있던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벼운 바람과 같은 소리’처럼 하느님의 존재를 경건한 마음으로 만끽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시고, 합당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가벼운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파괴하는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시원한 바람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느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대답할 수 없는 물음

우린 모든 의문에 대해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물음들도 있다. 왜 어떤 아기들은 신체적으로 기형이거나 정신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가? 사고가 났을 때, 왜 한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은 살아남는가? 왜 두 달밖에 안 된 건강한 갓난아기는 자고 있던 유아용 침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알지 못한다. 쉬운 대답은 없다.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결코 이해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바울로 사도도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고린토 전 13:12)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느님이 사랑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돌보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며, 특별히 쉬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희미하고 어두운 시대에 더욱 그러하다.

한 무신론자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음에 대답한다면 하느님을 믿겠네.” 그때 그의 친구인 그리스도인이 대답하였다. “미안하지만 나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모든 물음에 대해 대답을 할 수가 없다네. 신앙은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아.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요청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날이 올 것일세. 그때 우리의 모든 물음들에 대해 답변을 듣게 될 것이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성모 안식 축일을 준비합니다

8월 15일 성모 안식 축일을 맞이하여,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엄격한 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성모 소기원 의식』 예배를 드립니다. 금식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우리들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면서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에는 생선류만 허용됩니다.)

■ 여름 수련회 시작

7월 26일(금)부터 신데즈모스를 시작으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수련회가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무사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구세주 변모 축일 예배

8월 6일 화요일 구세주 변모 축일을 맞이하여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축일 예배가 거행됩니다. 예배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차편과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9~20일 양일에 걸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장년회에서는 여름 수련회 준비를 위해 춘천 성 보리스 성당의 사회복지관의 주변과 건물을 깨끗이 청소해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바실리오스 교우 가족 출국

약 5년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성찬예배 후 점심 식사를 제공해주신 불가리아 식당의 미카엘 교우와 바실리오스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사정상 식당을 정리하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바실리오스 교우는 가족과 함께 불가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음식 축제, 바자회 등 많은 봉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